

한승홍 / 장신대 교수

박윤선의 신학사상(Ⅱ)

박윤선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평양신학교 재학 당시 양면적인 성향 때문에 매우 갈팡질팡하였던 것 같다.

정암 박윤선 목사의 평양신학교 재학은 그에게 신앙열기나 소명받은 자의 희열이나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는 교수들의 성서 각 권에 대한 강의나 스스로 영어 주석서를 빌려 읽으면서 공부한 것 밖에는 평양신학교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깊은 영향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순박하고 천진스럽던 단순한 뜨거운 신앙심마저 가끔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수업 자체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평양신학교에서 성서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나 그는 성서의 권위 문제를 비롯하여 성서의 진리 자체를 분명히 그리고 명쾌하게 교수들로부터 전해받지 못했음으로 성서에 대한 상고도, 성서에 대한 믿음도 얻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²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신학의 보수주의의 아성이며 장로교 신앙의 보급창이었던 평양신학교의 성서관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다는 말인가? 이 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장로교 신학교 노선에 대한 흐름을 규명할 수 있는 언명이므로 분명히 그의 언급을 심사숙고하며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1930

년대 초의 평양신학교 신학 경향이 철저한 정통보수주의적이었다는 것과, 칼빈주의적 경건주의에 기초한 신앙노선이 지배하였고, 당시의 교수진도 박윤선의 주장처럼 복음주의나, 칼빈주의, 장로교신학에 무관심하거나 별거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박윤선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평양신학교 재학 당시 양면적인 성향 때문에 매우 갈팡질팡 하였던 것 같다.

그는 숭실대학 시절 때부터 전도대를 인솔하여 농촌 전도에 다니고, 설교도 했으며, 평양신학교 재학 시절에는 교회봉사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그는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도 철저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가정에서의 핍박은 그의 신앙 성숙에 종종 장애요소가 되었으며, 그를 움츠리게 하곤 했다. 집안의 분위기가 이교도적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박해 역시 심한 상황에서 그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며, 구세주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곤 했던 것이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은 자연히 그 자신의 3년 신학생 시절에 뚜렷한 신앙발전을 주지 못하고 1934년 3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은 하였지만, 그는 영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동경과 좀더 신학의 정수를 알아보려는 진리탐구욕 때문에 미국 유학을 세웠고, 그것은 구체화되었다. 집에서 박해받는 형편에 있던

한승홍 / 연세대 신학과와 같은 대학의 연합신학대학원 및 원헌대, 튀빙겐대에서 공부했고, 아켄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장신대 교수이며, 「문화종교학」 「기독교 교육 철학사상」 등의 책을 썼고, 「20세기 종교사상」 「20세기 사회사상」 「사회철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번역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는, 한국의 메이첸이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처럼 메이첸 신학 위에서 한국 장로교신학을 세울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가 보다 철저히 신학 공부를 하고자 미국에 간다고 할 때 그의 어머니의 반대는 가히 상상 할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통 보다 더 큰 것은 철산 장평리에 초가삼간을 얻어 가족을 남겨두고 빈손으로 미국 유학의 장도에 올라야 하는 가난이었다.

1934년 8월, 그는 친지들의 도움으로 얼마의 여비와 체재비를 받고, 일본 고베에서 27일간의 태평양 횡단길에 올랐다. 그는 고베에서 미국행 기선 지지부마루에 오르는 날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전체 암송하기도 했다.⁴³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가 그의 여행 목적지였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미국에서의 그의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시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신학교이다. 192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노선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약신학자 윌슨(R.D. Wilson), 신약신학자 메이첸(J.G. Machen)이 그곳에서 나와 세운, 칼빈주의 신학과 사상에 철저히 기초한 신학교로서 시작된 것이다. 박윤선이 유학할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는 메이첸과 윌슨을 비롯하여, 앨리스(Allis), 맥크레이(Macrae), 반틸(Van Til), 카이퍼(Kuyper), 스톤하우스(Stonehouse), 울리(Wooley)등 근본주의 신학의 기수들이 학과를 이루며 신학교를 움직여 나갔다.

이곳에서 박윤선은 특히 메이첸 박사의 신학에 매료되었으며, 그의 신학과 사상을 전수했다. 그리고 한국의 메이첸이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처럼 메이첸 신학 위에서 한국 장로교신학을 세울 꿈을 실현해 가고 있었다.

내가 입학때는 메이첸 박사가 학장이고 윌슨 박사는 얼마전에 별세한 후였다. 나는 주로 메이첸 박사의 지도를 받았고 그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위대한 신앙가였다... 나는 그의 문하에서 신약학을 전공했는데 특별히 주경신학(註經神學)을 배우는 도중에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⁴⁴

나는 신학자들의 학설에 대한 비판을 이때부터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도 깨닫게 되었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케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나는 성경 해석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성경 해석을 바로만 한다면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초자연주의(招自然主意)라는 사실이 나에게 명백히 알려진 것이다.⁴⁵

정암 박윤선의 미국 유학은 미국 신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된 것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지식의 흡수보다는 오히려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까지 다니면서도 확신없는 믿음과 회의에 찬 신앙 때문에 뜨뜨미지근했던 그의 신앙을 철저히 세워나간데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 그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는 전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을 뿐 가슴에 뭉클하게 와닿고,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 태도는 거의 이신론적(理神論的) 신학 입장에 서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자신도 평양신학교에서 칼빈주의적 신앙에 접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는 타국에 떨어진 이방인의 고독,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막연한 내일, 언어장벽을 넘을 수 없었던 고통, 특히 방학 때

그의
웨스트민스터
유학시절은
신학연구로
얻은
보배같은
신학지식
보다는
절대의존을
통해 얻은
영생에의
확신이
더 값진
것이였다.

마다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외로움 그리고 공허감 속에서 유일한 한 인간으로 텅빈 기숙사의 벽에 갇혀진 것 같은 홀로된 소외의식. 이런 실존적 상황과 심리적 불안을 그 자신은 뛰어넘어야 했고, 자신의 지금 이곳의 상황을 초월해야만 했던 실존적 숙명으로부터의 도피가 그를 성서의 인간으로 급격히 주형시켜 갔던 것이다.

그는 당시 그의 심경을 진술하고 있다.

멀리 타국에 있는 외로운 나그네로서 고국이 그리워질 때가 많았다. 너무도 외롭고 답답할 때는 종종 복도로 나가서 크게 소리쳐 보기도 했고, 자주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곤 하였다. 내가 머물던 큰 건물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소리를 질러도 남에게 방해되지는 않았다.*

그의 절규, 통성기도, 그리고 자신의 고독을 분출시키려는 이런 행위들은 자신에게 엄습하고 있는 고독, 적막, 피투된 실존체, 그리고 무반응의 정적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려는 실존적 항변이었고, 자기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려는 잠재적 존재의식의 표출이며 표현이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웨스트민스터 유학시절은 신학 연구로 얻은 보배같은 신학지식 보다는 절대의존을 통해서 얻은 영생에의 확신이 더 값진 것이였다. 그는 비록 2년 동안의 미국 유학시절이었으나 신앙에의 확신을 갖고 또 이런 절대적 신앙 위에서 성서의 축자영감설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는 철저한 근본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자로 변모되였다. 신학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존적 상황이 그를 새 사람, 성서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비교적 늦게 신앙에의 확신

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거듭나게 된 박윤선은 그의 일상 생활에도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거의 매일 아침 일찍부터 몇시간 동안은 성경 연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며, 또한 성경 연구 작업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는 3가지 의미있는 일을 하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의 고백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성취된 결과였다고 하겠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개학해서 공부가 시작되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며,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다. 그의 설교는 불같았다고 한다. 그만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으며,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감동의 설교, 은혜의 설교가 그의 입에서, 아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 서양인들의 이성적 가슴을 태우는 것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시카고 근방 시세로에 있는 성경교회의 메카레 레튼 목사는 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그는 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비로소 성서의 바른 해석을 맞출 수 있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증명된 성서의 진리를 터득했다.

이것은 그가 유창한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진솔한 간증, 그 자신의 적나라한 자기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미국 신자들의 감동을 자아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이때부터 그는 성서적 설교, 간증을 통한 청교도적 신앙을 그의 신앙 모형으로 흡수·체질화했다.

둘째, 그에게는 기독교도를 박해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의 사울보다 더 심하게 박해하는 박해자가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갈대가 바람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뻗뻗하고 튼튼하게 자라듯이 어머니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곳곳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박해자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매일 눈물의 간구를 했으며, 미국에서의 기도 제목에서도 항상 그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유학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모친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였다. 마침내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모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을 사모하여 그때부터 한글을 배워서 친구약을 일독하셨다고 한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어머니는 붓글씨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써서 미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주셨다. 나는 그 글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그 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다.⁴⁹

셋째,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비로소 성서의 바른 해석을 맞출 수 있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증명된 성서의 진리를 터득했다. 그것도 특히 화란어 원어로 읽게 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동안 틈틈히 화란어를 자습하였다. 삼대(三大) 칼빈주의 신학자 중 두 사람(카이퍼, 바빙크)이 화란 사람이니, 그들의 신학체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란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화란어 주석과 교리학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곧, 카이퍼, 바빙크, 크로츠이데, 크레다너스, 스킬더 등의 저서들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바빙크의 개혁 교리학을 애독함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⁵⁰

이 정도의 수확은 미국 유학 2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으며, 고독한 이방인에게 안겨준 최고의 값진 결과였다. 1936년 5월 그는 주임교수 메이첸 박사 밑에서 학위논문 준비를 한 다음 제출하여 미국 보수주의 신학의 본영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부터 신학석사(Th.M) 학위를 받았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소득은 이처럼 벅찬 것이었고, 학위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성공적이었다. 그의 신앙의 흔들리던 터전이 이제부터 확고해졌다. 그의 진술을 들어보자.

그곳에서 나는 칼빈주의 신앙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돌아 왔습니다.⁵¹

그의 이 진술은 그가 미국 유학의 장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전도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곤 했지만, 사실상 껍데기 뿐인 신앙이었고, 내용물이 담겨지지 않은 빈그릇과 같은 외형적인 신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곳에서 칼빈주의 신앙을 확실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그는 그의 2차 미국 유학에서 반틸의 영향이. 그후 그의 일생의 신앙관이 되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자신 그 이전에는 칼빈주의나 칼빈주의 신학의 정수를 모르고 신학교를 그저 매학기 이과목 저과목 이수하며 세월 따라 학기를 마쳐 가며 학점상 별 하자 없어 평양신학교 졸업은 했으나, 확실한 신앙은 없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일 그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가지 않고 평양신학교 졸업 뒤 일반 목회전선에 나섰다가 혹은 미국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닌 좀 자유주의 입장에 선 신학교에 갔었다면 그 자신 거의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을 것은 너무 자명하게 추리될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칼빈주의 신앙은 매우 늦게 확신된 것이었다.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평양신학교만 졸업하고도 그곳에서의 뜨거운 신앙체험과 경건훈련으로 뜨거운 설교자들이 되었는데도, 박윤선은 평양신학교에서 전혀 신앙이나 신학적으로 얻은 바가 없었고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좀더 그 진의의 깊이를 연구해 볼 과제이다.

박윤선은 1936년 5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가 미국에 나가있던 2년 동안의 총회는 몇가지 신앙적 문제들과 아빙돈 단권주석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귀국한 박윤선은 우선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1934년 아빙돈 단권주석사건으로 총회가 표준 성경주석을 집필하기로 결정하고 박형룡 박사에게 편찬일을 맡겨 일하게 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귀국 뒤 곧바로 총회 표준주석 편집에 참여했다. 표준주석편집 사무실은 평양신학교 아래층에 있었으므로 그는 매일 출근해서 주석 편집에 힘을 쏟는 한편 평양신학교에서 원어학 강사로 강의도 하면서 배운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수시켰다.⁸⁾ 그러면서 동시에 평양에 유일한 여자신학원인 평양고등성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강의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학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신학이 보잘 것 없는 지식수립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계적인 신학수업을 통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그에게 좀더 깊은 신학에의 매력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좀더 멀리 도약하려는 충동같은 것이 그의 고민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미국 유학의 길을 찾았고, 그것은 자기 신학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2년 동안 총회 종교교육부 표준 성경주석에 심혈을 기울였던 결과 1938년 6월 고린도후서 주석을 기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그는 사표를 내고 1938년 여름 다시 도미하여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반틸(C. Van Til) 교수 밑에 들어가 고대어와 변증학을 전공했다.⁹⁾ 그가 변증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된 동기는 아마 표준주석사업을 하면서 스승인 박형룡 박사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고대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성서주석을 하면서 고대어를 모르거는 주석 자체가 외국 주석서의 번역 수준을 넘지 못하리라는 현실을 직감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미 그의 표준주석사업에 대한 참여는 그의 일생의 신학적 과제를 결정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40년 동안 매일 주석에 혼신을 다해 열심히 일해왔다. 주석사업은 그의 평생의 과업이 된 것이다.

그는 그의 2차 미국 유학에서 반틸의 영향이 그후 그의 일생의 신앙관이 되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반틸은 철저히(무조건) 성서권위주의 신학자이다. 성서영감설은 물론 성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신학자인데, 박윤선 자신의 신앙과 성경관에 절대적(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메이첸의 신앙관과 신학론에 반틸의 신앙관과 성경관에 합쳐진 극단적 정통보수주의 신학이

웨스트민스터
연구기간
동안 그는
좀더
보수주의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성서주의에
빠질 정도로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게
되었다.

박윤선을 한국의 성서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박형룡을 ‘한국의 메이첸’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러한 신학사상의 유사성을 견주어 평가하는 등식에 따른다면, 박윤선은 ‘한국의 반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만큼 반틸의 신학사상은 곧 박윤선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반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분의 변증학은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뿐이다. 자연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불신자는 자연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불신자도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성경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자기의 이성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⁵⁴

솔직히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두번째 연구기간 동안 그는 좀더 보수주의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성서주의에 빠질 정도로 깊게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성서신앙주의에 가까운 성서의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한평생 성경 무오(無誤)의 진리를 믿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 때로는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비판하여 왔다.⁵⁵

박윤선은 미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1937년 10월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그는 동경까지 와서 다음해 3월까지 머물며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과 골로새서 주석 집필을 하다가 귀국했다.⁵⁶ 만주 봉천에 있는 교포들이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려고 그를 초청하여, 그는 귀국 후 가족들을 데리고 봉천으로 갔다.

1940년 봉천에서 그는 두군데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설교를 했다. 그리고 곧 봉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⁵⁷

1941년 봉천 북능 지역에서 만주신학교가 개교되었고, 박윤선은 그곳에서 신약학을 교수하며 또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가르쳤다. 이때 정상인(鄭尙仁) 목사가 교장으로 있었고,⁵⁸ 박형룡 박사는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문닫게 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있었는데, 그도 만주신학교에 합류하기 위하여 해상으로 도착했다.⁵⁹ 그러나 그때 신사참배 강요와 그로 말미암은 기독교계의 수난은 매우 심하였고, 우상숭배에 무너지는 교회와 교역자들로 인해 교계는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박윤선도 한번 신사참배 한 적이 있으므로 신사참배를 계속하며 신학교수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을 탈출하고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주석사업에 주력했다.⁶⁰ 그것은 마치 한경직 목사께서 신의주 제2교회를 시무하며 계속적인 신사참배 강요를 뿌리치다가 결국 쫓겨나서 보린원에서 해방을 맞을 때까지 3~4년 고생 감수해야 했던 것과 똑같은 동기였다. 학교에서의 의무나, 교회에서의 목양 자체는 곧 일본 통치 아래에서 총독부의 방침을 추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일본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수의 자세를 가진 것을 뜻한다.

그는 스스로, 아무런 강요를 받지도 않았지만, “나도 신사참배를 한번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1938년 신사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기독교 목사로서 목회를 잘했으며,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평범한 목회를 했다는 것은 신사참배에 참여했음은 물론, 신사참배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사한 성도들이나 순교자들은 극히 일부의 교역자들이었고, 거의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했다. 해방되기 7~8년 동안에 목사로서 목회하며 신사참배 한번 안하고 목회한 목사는 한명도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는 일종의 국가 의식이라고 선전하며 국경일이나 천장절 행사 혹은 공식적인 의식이 있을 때는 동방요배나 신사에 집단참배를 하는 것이 하나의 공개행사였으므로 신사참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한계상황 속에서의 타율적 형태였기 때문이다.

만주신학교에서 교수하다 사임하고 주석사업에 몰두하던 박윤선은 그 나름대로 그럴 이유가 있었다. 그는 과시적이고 떠들썩하게 민족이나 애국운운 하는 허풍선이 애국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철저한 신앙과 애국의 정신이 몸에 스며있는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한분이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성서 절대주의 신앙으로 다져진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특히 그의 주님께만 향한 일편단심의 건전한 믿음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그 길을 택하는 방법으로 신사참배의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사참배 해야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처럼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미안한 것이었으나 물리적 힘에 연약한 신체

가 맞서면서 끝나는 것은 그 자신의 봉사의 가능성과 기회마저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극적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시 그의 착잡한 심경과 분위기를 아래와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 시대에 본국 교계는 신사참배 문제에 휘말려 심히 어지러운 국면에 놓여 있었고, 좀 새롭게 나아가려던 만주 교계에까지 그 신사참배의 바람이 불어와서 점점 어지러워졌다. 그러므로 나는 신사참배 문제와 타협하고 나아가는 교계에서 탈출하려고 기회를 찾으며, 조용한 곳에서 성경 주석 저술에만 전념하기로 작정하였다(나도 신사참배를 한번 했으므로 회개하는 심령으로).⁶⁾

위의 글에서 우리는 정암의 인간됨과 크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계의 어려움을 감지하면서 자신의 영화의 길을 걷어차고 마수의 함정에서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아무런 강요를 받지도 않았지만, “나도 신사참배를 한번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해방 직후 기독교계가 신사참배 문제를 내세우면서 출옥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한 교회지도자들간의 치열한 싸움과 그리고 교단이 갈라지는 아픔을 보아왔고, 또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신사참배 목사들이 “나는 안했다”, “신사참배 목사들은 통회하라” 등등을 외쳐대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려는 이중인격적 술책과 기만행위였음을 역사적 실증을 통해서 접하며 분노했고, 사기꾼들의 종횡무진한 활기에 입을 벌리고 말았다. 그런데 정암은 고백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또 다른면에 순수성과 크기가 있다는 것

자연에서의
집필과 피서는
동시에
그의 삶에서
그가 스스로
택한
퇴수의
시간이요,
동시에
도약을 위한
준비기라
할 수 있다.

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에와서 점점 순결과 처럼 행세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과 이중인격이 파헤쳐지고 있고, 당시의 기록문서들이 공개되는 현실을 보면서 일본에 아부하고, 우상숭배를 위해 기독교 신앙양심마저 팽개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과 허탈감에 빠지곤 한다. 만일 이런 인물들이 해방이 되자 곧 신사참배는 당시의 물리적 폭력 앞에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지른 죄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솔직히 회개를 하고 새인생을 시작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더 존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지도자처럼 행세하다 죽어갔고, 그런 인물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일제치하에서의 행적이 밝혀진 것을 보며 오히려 더 많은 분노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민족을 배반했고, 교회를 배반했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마저 배반한 것이다. 바로 이런 분노의 한 문맥을 넘기면서 정암 박윤선의 솔직한 고백, “나도 신사참배를 한번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게 들린다. 그의 이런 회개의 심령 때문에 그는 그의 신학과 교회헌신에 더욱 힘과 정성을 쏟았을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인 성서 66권의 완전 주석에 힘을 쏟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43년에 나는 만주신학교를 사임하고 봉천에서 약 이백리(80km) 거리인 안산으로 내려가 성경 주석 저술에 몰두하고 있다가 8.15 해방을 맞았다.⁸²

이글에서 우리는 그가 태평세월 같은 시간을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그는 그 짧은 시간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여

탈고까지 하였고, 시편 주석 일부와 공관복음 주석 일부도 마쳤으므로 심신을 돌보지 않고 저술에 박차를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집안이 너무 답답하였다. 아니 조국의 희망없는 내일을 생각하고, 멀리 타국에까지 와서 나라없는 백성으로, 국가없는 무국적인으로서 무서운 여름 방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성경책을 주석하려 할 때는 가슴도 답답했다. 그럴 때는 책을 싸들고 봉황산 계곡으로 들어가 낮에는 바위 위에 앉아서 공관복음 주석을 집필하며 피서를 하기도 했다. 자연에서의 집필과 피서는 동시에 그의 삶에서 그가 스스로 택한 퇴수의 시간이요, 동시에 미래에 멀리 뛰어넘어갈 수 있는 도약을 위한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곳에서 8.15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의 소식은 조선인 모두의 기쁨이었지만, 더욱이 조국 강산을 떠나서 타국에서 눈초리받는 이방인으로 정착없이 살아야 하는 해외동포들에게는 그 감격이 더하였다. 고향에는 그리운 산하가 있고, 보고싶은 얼굴들이 있으며, 향긋한 땅냄새와 누런 진토가 있어 고향맛을 풍겨주고 있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므로 만주에 퍼져살던 많은 동포들도 조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日帝)의 탄압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봉천에 있던 가족과 함께 그달 27일에 봉천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약 6개월간 머물러 있었으나, 삼팔선 이북의 정세는 공산주의로 굳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나로서는 월남할 뜻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삼팔선을 넘어 서울로 왔다. 이 때 나의 소원은 신학교육과 주석 집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⁸³

그의
불같은 선교와
뜨거운
신앙열기는
6.25 직전
신학교에서
뜨거운
회개운동에
불을
붙였다.

나와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46년 3월 1일이었다. 이태원에서 두어 달 지내고 5월에 한상동 목사의 초청으로 신학교 설립을 위해 부산을 경유하여 진해로 내려갔다. 6월 하순에 진해교회의 예배 처소(해방 전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건물)에서 신학 강좌를 개최하여, 한상동 목사와 주남선 목사 두 분께서 주동이 되어 두달 동안 운영해 나갔다. 이때에 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으며, 나는 신학강의를 하는 한편 진해 경화동 교회의 설교를 몇 달 동안 담당했다. 그해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란 명칭으로 부산에서 개교하였다. 이 학교의 신학 노선은 칼빈주의이다. 설립자는 주남선(朱南善) 목사와 한상동(韓尙東) 목사인데, 이들은 출옥 성도이다. 즉, 일제(日帝)가 강요했던 신사참배(神社參排)를 반대하고 투옥되었다가 6~7년간의 옥고(獄苦) 중에 8.15 해방을 맞아 출옥한 분들이다. 초대교장으로 내정된 박형룡(朴亨龍) 박사의 귀국(당시 만주 체류)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부족하나마 내가 교장서리와 교수로서 주경신학은 물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그리고 성경원어도 담당하였고, 한상동 목사께서 목회학 교수로 수고하였다. 그리고 한명동(韓明東)·이상근(李相根)·박손혁(朴遜赫) 목사 세분은 강사로 협력하였다.⁶⁴

어려운 이 시점에 미국 선교사 네분이 가담하여 신학교 강의를 시작한 일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하부선(韓富善, B.F. Hunt) 선교사는 한국과 만주에서 선교활동 중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었다가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마두원(馬斗元, D.R. Malsbary)·최의손(崔義遜, W.H. Chisholm)·함일돈(咸日頓, F.E. Hamilton)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본국으로 추방되었었다.

세분 선교사는 강사로 협력했고, 한부선 선교사는 교수로서 여러 방면으로 협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으니, 그것은 그 자신이 언제나 진실주의를 몸소 실행으로 가르친 사실이다.⁶⁵

당시 장로교 안에는 1940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운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의 전신)가 서울에 있었다. 이 신학교는 우선 성경관(聖經觀)에 있어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칼빈주의 입장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한국 장로교 안에는 성경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⁶⁶

고려신학교는 한부선 선교사의 헌신적 노력과 한상동 목사의 열정에 힘입어 날로 그 모습이 갖추어져가며 학교로서의 기구적 조직과 체제가 형성되어 갔다. 몇곳을 옮겨다니며 신학교육을 하던 고려신학교가 부산 용두산 및 광복동에 자리잡으면서 학교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박형룡 박사를 만주 봉천에서 모셔올 계획을 추진했다. 박 박사는 고려신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하여 8개월 동안 시무하다가 한국 천체교회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에 장로회신학대학을 남산에 설립하였고, 그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단의 신학교육과 경건훈련에 전력하였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는 고려신학교에 남아서 고려신학교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불같은 설교와 뜨거운 신앙열기는 6.25 직전 고려신학교에서 뜨거운 회개운동에 불을 붙였으며, 회개운동은 1주일 내내 꺼질 줄 몰라 수업을 전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성서주석에 게을리

1953년 10월 박윤선은 드디어 화란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화란으로 떠났다. 그곳의 자유대학에서 연구하던 중 비극이 전해졌다.

하지 않았다. 성서주석은 이미 앞서서도 그가 밝혔듯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칼빈주의 신학영향이 컸다.

칼빈주의 신학 처지에서 일관성 있게 주석을 저술하려면 칼빈주의 신학 지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재정비하게 된 것이 성경 주석 저술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⁹

정암신학은 칼빈주의 위에 튼튼히 세워진 구조물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적 관심은 자연히 칼빈주의의 진수를 찾아보려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러한 분위기에 빠져 칼빈의 정신을 체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오히려 루터의 신학이나 혹은 슐라이에르마허적인 경건주의적 감정신학보다는 개혁주의적 성서주의로 주형되는 칼빈주의와 칼빈주의 신학이 더 친근감있게 와닿는 신학이 되었다. 미국에 두번씩 유학하면서 철저한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에 그 정신적 기초를 두고 세워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만 가서 공부했던 점이라든가, 특히 그곳에서도 메이첸이나 반틸 교수 외에는 주로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에 깊이 빠져들었고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그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는지 분명히 암시해 주는 것이었다. 1930년대 초·중반에 이미 화란어를 자습으로 배워 화란어 신학원서를 읽어냈던 정암은 반드시 언젠가는 화란에 가서 직접 공부하며 풍토적 분위기와 문화적 실체성을 확인하며 흡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최대의 꿈이었고, 소원이었다.

1953년 10월 박윤선은 드디어 화란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화란으로 떠났다. 그곳의 자유대학에서 연구하던 가운데 그에게

인생 최대의 비극이 전해졌다. 부인의 사망 소식이었다.

나는 신학을 더 연구할 목적으로 1953년 10월에 화란 자유대학으로 갔다. 그곳에서 유학하던 중 54년 3월에 나는 뜻밖의 비보를 받고 즉시 귀국하였다. 내 나이 49세 때 미성년 3남매를 두고 아내(金英善)가 교통사고로 별세한 것이다. 나는 애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통곡하였다. 가정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근이 6개월 지내고 가정을 다시 세워 나가기 위하여 그해 10월에 현재 내조하고 있는 아내와 재혼하였다.¹⁰

화란 유학기간은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에게는 매우 큰 의미와 영향을 준 기간이었다.

나의 화란 유학 기간은 길지 못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의 연구 결과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화란 유학이 아니었다면 신구약 주석 저술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¹¹

그는 모든 것을 일단 성서와 연관시켜 계획했고, 특히 그의 최대 사업인 성서주석과 관련되는 것에 의미부여를 하며 결단을 했다. 그는 언제나 성서주석 집필을 쉬지 않았다. 그만큼 매일매일 성서를 읽고 상고하며 주석하는데 그의 마음을 기울였다.

나는 언제나 성서 주석 집필을 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언제나 성경에 머물러 있었고, 내 머리는 성경 연구와 사색으로 골몰해 있었다. 때로는 펜을 들 수 없을 만

동산교회는
개척교회로
박윤선 목사의
3년 목회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는
그가
잊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의
나날이었다.”

큼 심적 고통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런 때에도 집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한다.⁷⁰

1960년, 그는 성수주일(聖守主日)에 대한 의견 차이로 14년간 몸담아 왔던 고려신학교를 떠났다. 학교사택을 나와서 그 가족들과 부산 동래구 장전동에 거처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는 사도행전 주석을 탈고하여 그 다음해 서울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 그의 성서 주석 집필은 대단한 열심을 기울인 일생 대사처럼 여겨졌다. 오히려 그는 나날을 성서 주석 집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주석사업에 쏟아부었으며, 그 가족들에 대한 의무나 돌봄보다도 우선적인 것으로 주석 집필에 매달렸다. 고려신학교 재직 14년 동안에 성서 주석 25권을 내게 될 정도로 그는 부지런히 주석사업에 열심을 다해 일했다.

1961년 1월 그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던 동산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 동산교회는 개척교회로서 박윤선 목사의 3년 목회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는 그가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의 나날이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목회를 통해 그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산교회 시무 3년 동안

에도 그의 주석 집필은 계속되었으며 15권을 탈고했다.⁷¹

1963년 박윤선은 총회신학교(현 총신대 신대원 전신) 교수로 초빙되었으며, 1964년에는 윤번제로 시행되던 교장직을 맡아 신학교육과 행정에 다시 그의 철저한 교육원칙을 실천해 나갔다. 1965년 3월부터 1967년까지 2년동안은 총신대 부산분교에서 교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부산 수정동 소재 성산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기도 했으며, 이런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틈틈이 붓을 들어 시편 주석 증보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⁷²

1967년 3월 그는 다시 상경하여 사당동 총회신학교 교수로 봉직했다. 그가 담당했던 과목들은 주로 신약석의와 성경해석학, 그리고 신약신학 등이었으며, 몇해동안 동양철학 강의도 했다는 사실은(그의 자술임)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⁷³

1970년 한해 동안 그는 두군데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바쁘게 지냈으나, 그의 건강에는 너무 무리한 해였다. 1971년 휴양차 도미하여 1년 체류하며 잠언 주석 집필을 마쳤고 귀국하여 다시 신학교에 복귀했다. 교수하며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석 집필도 그전처럼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건강회복이 된 그는 1974년 70세 연세로 신학교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정년 은퇴했다. 총신에서 교수한 햇수가 11년이었고, 13권의 성서주석집필이 탈고되어 책으로

주(註)

4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영음사, 1992), p. 56.
43.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6).”
44.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7).”
45. 「성경과 나의 생애」, p. 73.
46. Ibid, p. 74.
47. Ibid, p. 74.

48. Ibid, p. 74.
49. Ibid, p. 75.
50. Ibid, p. 75.
51. 「신앙계」, 1983.1. p. 39.
52. “나의 생애와 신학(7)”, 제2면, 「신앙계」, 1983.1, pp. 39~40.
53. 「성경과 나의 생애」, p. 87.

칼빈주의 신학은 그의 신앙의 바탕이었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향상하는 정통보수주의 교회 성도의 삶 자체이다.

출판되었다.⁷⁴

그에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의 은퇴란 사실상 제도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은퇴한 직후 도미하여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며 전적으로 성서 주석 집필에 몰두했다. 그곳에서의 집필은 도서관에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집필 속도도 빨랐고, 자료찾는 데도 시간이 절약되어 구약성서 가운데 12권을 탈고했다.⁷⁵

1977년 일시 귀국하여 총신대 신대원에서 한학기 강의한 다음, 1979년 2월에 총신대 대학원장으로 초빙되어 11월까지 교수하다 사임하였다. 그에게는 항상 교수와 목회의 연결고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특히 주석사업도 부단히 이어져 그의 삶 자체의 한 흐름을 굵게 그어 주며 그의 시간선상에서 흔적을 남기며 지나갔다.

그는 그의 교수의 자세와 사명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의 교수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불타는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이다. 그 이유는, 칼빈주의 신학이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말씀의 신학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말씀의 단맛을 체험했으므로 후학들에게 나의 깨달은 바 성경 진리를 전해 줌에 있

어서 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뿐 아니라, 나 자신은 부족하면서도 신학도들에게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진실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였다. 그리고 또 신학생 시절에 참되이 노력하여 실력있게 졸업해야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별수 없이 외식(外飾)하는 자가되어 한평생 자타(自他)를 속이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였다.⁷⁶

그가 그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남긴 이 말은 사실 그 자신에게 던졌던 충고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생활신앙이었다. 칼빈주의 신학은 그의 신앙의 바탕이었고,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향상해 가는 것은 정통보수주의 교회의 성도의 삶 자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당위성이다. 그리고 건전한 신학공부와 올바른 성서관 위에서 자신의 신학함이 정립될 때 자타에 진실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세를 표명한 것이었다.

정암은 한국신학계에서, 특히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장로교 계통의 교회에서 높이 추앙되는 신학자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들이 속한 교파를 초월해서 정암 박윤선의 건전한 신앙, 샘처럼 솟아나는 성서적 지식, 그리고 학문성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주(註)

54. Ibid., pp. 87~88.

55. Ibid., p. 86. cf. 박윤선,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 「신학정론」 제4권 제7집(1896), p. 17.

56. 「성경과 나의 생애」, p. 88.

57. Ibid., p. 88.

58. Ibid., p. 89.

59. “나의 생애와 신학(8).”

60. 「성경과 나의 생애」, p. 89.

61. Ibid., p. 89.

62. Ibid., p. 90.

63. Ibid., p. 91.

64. Ibid., p. 97.

65. Ibid., pp. 97~98.

66. Ibid., p. 98.

67. Ibid., p. 107.

68. Ibid., p. 107.

한국인으로서
단독으로
성서 전체를
완전
주석하여 집필,
간행했다는
것은
선교 백년의
역사에서
본다면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정암은 그의 호가 의미하듯이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암석이며, 칼빈주의가 토착할 수 있는 자리이다.

정암 신학은 매우 온건하며, 성서적 진리에만 의존하는 순수 보수성이 짙게 깔려 있다. 그의 신학은 신학 논쟁을 유도할 정도로 뚜렷한 견해 차이가 대립하는 강하고 억센 모습이 아니고, 부드럽고 애상적이며, 따뜻하고 몽클한 것이 함께 융합된 화학적 결합체 같은 것이다. 물론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도전은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을 성서적으로 보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는 매우 큰 일을 우리 신학계와 교회에 남겨두고 갔다. 한국인으로서 단독으로 성서 전체를 완전 주석하여 집필 간행했다는 것은 선교 100년의 짧은 역사에서 본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러 이의 없을 것이다. 그의 주석이 오늘도 설교 강대상에서 많은 후학들과 그의 제자 목사들로 말미암아 인용되고, 참고되고,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그의 신학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1988년 6월 30일 그는 영면했다. ㄹ

—계속—

주(註)

69. Ibid., p. 107.
70. Ibid., pp. 107~108.
71. Ibid., pp. 108~109.
72. Ibid., p. 145.
73. Ibid., p. 145.
74. Ibid., pp. 145~146.
75. Ibid., p. 146.
76. Ibid., p. 147.



일기장을 훑쳐본 적이있으십니까?

가슴은 두근두근, 비밀을 안 것 같은 흥분된 마음. 우리를 가장 훌륭한 감상자가 되게 해준다는 면에서 일기장은 가장 뛰어난 예술품입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당신을 바꿔주었습니까? 그냥 잊혀졌습니까? **쥘리 물러의 일기**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삶까지 훑치게 해줄 것입니다.

- 쥘리 물러 지음
- 박준언·성현모 옮김
- 212쪽/3,200원

도서
출판 **두란노**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반드시
박윤선의
제자들만의
모임이라거나
그곳에서
유래된
신학운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추종자들 혹은 제자들은 칼빈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려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칼빈주의 신학이란 용어의 범주를 탈출하려하고 있다. 그들은 칼빈주의란 말 대신에 즐겨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며 시대성에 접근하려 조심스런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변화가 점진적이면서 본질적으로 매우 획기적 움직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의 제자들은 이미 여러 지류를 이루고 있고, 혹은 독자적 행동을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통합측 신학자들 가운데 온건 보수적 학자들과 합동측 신학자들 가운데 어느정도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들, 그리고 중도 보수주의적 개혁 신학자들과 열심히 복음주의 신학운동을 전개하며 한국신학계의 한 세력을 이루어가고 있다.

새로운 복음주의운동이 반드시 박윤선의 제자들만의 모임이라거나 그곳에서 유래된 신학운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신학계에서의 신복음주의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암의 제자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Ⅲ.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정암 박윤선의 신학상을 개관해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신학의 성향과 신앙양태를 통하여 그의 신학적 실체를 정형해 보았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한국 신학계에서 끼친(남긴) 영향을 살펴보며 최종적 평가를 하도록 하자.

1) 박윤선은 성서주석에 일생을 바쳐왔다. 그는 단독으로 성서 66권을 주석하여 출판함으로써 한국 신학계에 큰 공헌을 했으며 빛을

남겼다. 이 일은 한국교회 100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이다. 이 일은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자랑할 만한 대사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박형룡 박사와 더불어 한국교회에 메이첸-반틸의 근본주의와 변증론을 전파하여 한국교회의 정통보수주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한몫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신앙은 결국 초기에는 박형룡식의 정통보수주의, 미국유학시절에는 칼빈주의, 해방 후에는 형식주의적 성결주의(=독단적 배타주의), 후기에 와서는 관용적 개혁주의로 변했고 그래서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2) 그러나 그가 한국교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도 있다.

첫째로 그는 칼빈주의를 성서를 성서로 해석하는 성서해석론에서만 깊이 주장했을 뿐, 칼빈주의의 개혁정신, 즉 칼빈의 5대 교리를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해석·수용해야 하는 과제에는 거의 무관심했다. 그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성에 관한 신학의 궁극적 관심을 거의 방관하는 자세로 넘겨 버리고, 오직 성서주의에 몰두하여 복음의 의미만을 캐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는 자기 신학을 갖지 못한 신학자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는 성서주석에 몰두했고 성서 66권을 주석하였지만, 그의 독창적인 주석방법론이나 주석신학의 본질 등에 관한 이론을 논문으로 남기지 못했다. 이것은 그가 성서해석학의 원칙을 어떤 입장에서 수용·활용했으며, 그의 해석학 이론은 어떤 것인가 하는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늘 말하는 성서의 절대성과 성서의 정경성을 어떤 해석방법론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학문성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박윤선은 신학하는 자세에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일생의 과제는 신학교육, 성서주석, 말씀선포에 집중되어 있다.

다. 그는 성서주석을 영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스스로 늘 기도하는 자세로 그리고 사실 기도하면서 써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주석자의 몸가짐일 뿐이며, 학술행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로 그는 상황신학을 거부하며 항상 193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풍, 곧 메이첰식 신학이념 이상을 뛰어 넘지 못하고 신학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신학(*Theologia semper reformanda*), 그리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본질을 역설하는 칼빈의 개혁주의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항상 새로운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새롭게 들은 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칼빈의 정신이며, 개혁교회의 주장이다. 박윤선이 성서의 시대적 해석 보다 19세기말의 근본주의를 따라 계속 파수하는 자세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영향과 신학반경은 극히 일부분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박윤선은 그의 신학하는 내용에서 보다는 신학하는 자세에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일생의 과제는 신학교육, 성서주석, 말씀선포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내 일평생 동안 신학교육, 주석사업, 설교 이 세 가지를 좋아했고 이 일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은 특별한 것이어서 뼈에 사무칠 만큼 따갑습니다.¹⁶

한마디로 정암, 그는 개혁주의를 고수하며 살았고,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며 살았으며, 성서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열정으로 살아갔던 인물이다. 1979년 10월 9일 친구약 성서 66권을 주석·완간하여 총신대에서 감사예배를 갖게되었을 때 그는 그의 40년 주석사업의 결실에 감격했다. 그 감격은 한국 신학계에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것이리라. ∞

주(註)

1. 박윤선, "한국교회 주경사(註經史)", 「신학지남」, 제35권 제1집(1968.3), p.9.
2. Ibid., p. 9.
3. 박윤선, "한국교회 주경사", pp. 10~11.
4. Ibid., p. 10.
5. Ibid., p. 11.
6.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 pp. 160~161.
7. Ibid., pp. 160~161.
8.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10)", 「크리스찬신문」, 1980.5.24, p. 2.
9.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p. 85.
10.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10)", p. 2.

11.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p. 86.
12. Ibid., p. 69.
13. 박윤선, "한국교회 주경사", p.13.
14. Ibid., p. 13.
15.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p. 69.
16. 「신앙계」, 1983.1, p. 39. 그는 일생동안 이 세가지 일에 전념하며 생활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늘 가르치고 글쓰는 것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그는 손이 말이 안들을 때에도 붓을 들었고, 여행중에도, 심지어 자다가도 영감을 받으면 벌떡 일어나 떠오른 착상을 메모하고 자곤했다고 간증한 바 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람 박윤선의 면모이며, 실체이다. 그의 삶은 오직 성서의 성서를 통한 해석에 연결되어 있었다.